

뿌리부터 튼튼한 AI 인재 함께 키운다

市, 시의회·교육청 참여 광주전략회의 첫 개최 초·중·등 인재 양성 강화·영재학교 설립 등 논의

광주시가 제1회 광주전략회의를 열고 뿌리부터 튼튼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남 남구 송하동 광주실감콘텐츠클럽(GCC)에서 제1회 광주전략회의를 열고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광주전략회의에는 민형배·이용빈 국회의원, 정무장 시의회 의장, 이정선 교육감, 박철신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박선주 광주교대 인공지능(AI)융합교육센터장, 박광열 광주교대 에듀테크소프트랩단장, 조인현 NHN아카데미 팀장 등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강 시장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차승세 정부특보,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 염방열 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전략회의는 시청 주요 결정권자인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이 참여하는 정책논의 플랫폼으로 회의의 주제에 따라 국회의원,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시는 광주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뿌리인 초·중·등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인공지능 영재학교 유치·설립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인재 양

성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유기적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핵심 인재 양성 정책인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체계적인 초·중·등 교육과정을 만들어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 시간을 최대한 늘리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흥미에 기반한 인공지능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재를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인공지능 영재고·마이스터고 설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실무협의체(가칭)를 꾸려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운영찬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광주에 인공지능 영재고를 설립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초·중·등 기초 교육과장부터 인공지능 교육을 탄탄히 다져야만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며 "광주전략회의는 교육기관

과 입법, 행정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중·등 인재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34개교,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3개교, 광주 소프트웨어(SW)마이스터고에 인공지능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인공지능 분야 창의융합형 교원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등 인재와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대학 지원,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인공지능 직무전문 교육, 인공지능 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선강기자



광주실감콘텐츠클럽(GCC)에서 열린 '제1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道, 우수 자율형 건물번호판 30점 선정

'우수설치' 강진·무안·함평군 최우수...디자인 대상 이용기서

전남도는 30일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2022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을 추진, 건물 주인이 설치한 우수 작품 3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설치 분야와 디자인 분야로 나눠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77점이 응모했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우수 설치 분야 18점, 디자인 분야 12점을 선정했다.

시·군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로 확정된 우수설치 분야에선 강진군·무안군·함평군이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다. 건물의 용도와 조화롭게 제작된 건물번호판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디자인 분야는 전문가 심사에서 디자인, 판독성, 활용성, 친환경성을 평가하

고 도민 선호도를 반영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짧은 기간에 600여명의 도민이 설문에 응해 도시미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자인 대상은 이용기서의 '생명의 땅 푸른 전남'이 차지했다. 생명력이 넘치는 전남도의 태양, 녹색자연, 푸른바다를 상징하는 전남도 마크를 활용한 작품이다. 수상작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개최 예정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연찬회'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건물번호판 작품을 도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며 "아름답고 참신한 자율형건물번호판이 도내 경관 개선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이동노동자 공공쉼터 확대 운영

오늘부터 13개 기관 34곳 활용

광주시는 30일 "시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공공쉼터'(이하 공공쉼터)를 12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업무 특성상 수시로 이동하면서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한다.

시는 2018년 상무지구에 이동노동자 쉼터 '달빛쉼터'를 열고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쉼터연화제, 생활법률상담, 찾아가는 이동전화 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하지만 쉼터가 한 곳 뿐이고 건물 8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확대했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확대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있는 공공기관을 공공쉼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쉼터는 시청, 광주 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기관 총 34곳이다. 특히 각 공공시설물의 휴게실, 로비 등에 마련된 휴게공간을 공유해 이동노동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탁자, 의자, 정수기 등도 제공한다. /박선강기자

5·18피해자 2명 중 1명 PTSD 호소

(의상후 스트레스장애)

광주시, 실태조사 최종보고회...경제적 어려움도 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2명 중 1명은 PTSD(의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소득은 보훈유공자의 75% 수준인 연 평균 1천821만원에 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밝혀졌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 관계자를 비롯한 5·18공법 3단체, 수행사(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민병로 교수)은 전국에 거주하는 5·18피해자 가운데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2천477명 중 응답자 2천9명을 대상으로 신체·심리적 피해 현황 및 사회·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피해자의 47.1%가 PTSD(의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75.4%),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49.1%), 하더라도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13.7%)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건강(58.5%)과 나이(33.6%)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주거 형태는 56.2%가 자가 소유이고, 공공임대주택(14%), 월세(14%), 전세(8.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혜택은 82.3%가 의료비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는 5.6%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피해자 본인 소득은 연평균 1천821만원이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2천851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보훈유공자 소득의 75% 수준에 그친 것이다.

지원 정책으로는 ▲법적 지원(보훈급여금 신설 등) ▲복지 지원(보훈서비스 인지도 제고 등) ▲의료 지원(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 확대 등) ▲심리 지원(개인 심리치유와 사회적 치유방안 구분해 트라우마 치유서비스 확대 등)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5·18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전남 '열린관광지' 사업 전국 최다 7곳 선정

전남지역 7개 관광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전국 최다인 7개소가 선정돼 국비 17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에게 동등한 관광 활동을 보장하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객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41개 관광지가 응모해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9개 지

자체 20개소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해남 2개소, 함평 3개소, 영광 2개소 등 전남 7개소를 비롯해 경남 3개소(사천), 강원 2개소(영월), 경기 2개소(시흥), 대전 2개소, 충남 2개소(공주), 전북 2개소(임실)다.

전남지역 선정 관광지는 함평의 함평엑스포공원·돌머리해수욕장·함평자연생태공원, 해남의 우수영관광지·송도해수욕장, 영광의 불갑사 관광지·불갑지수지 수변공원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의 전문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의 열린 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함께 이하는 세상, 로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새로운 청사로 이전 하였습니다.

장애이 고용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새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개시일 2022. 11. 21. (월)

**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버스
천교 하차 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